

■ 멕시코 농촌 사회의 축제와 일상

— 『우리는 빠창게로!』

강 정 원



이 책의 제목 『우리는 빠창게로!』를 풀어 말한다면, ‘멕시코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자 김세건 교수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동일시되고는 하여, 곱지 않은 또는 심지어 부당한(생산—노동과는 대척적인 소비—놀이의 관념과 결부되어) 잣대가 적용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자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료해 보인다. 축제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 고단했던

역사에서 창조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네들 일상의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일상의 축제성 또는 축제의 일상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축제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축제(祝祭)는 유희(祝)와 제의(祭)가 결합된 현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터너의 ‘리미날리티 단계’ 개념은 유희와 결부되는 이탈과 전복의 위험성 그리고 제의와 결부되는 반복에 의한 관습

성의 모순이 축제라는 시공간에서 변증법적으로 구조화된다고 설명한다. 축제에 내재하는 이러한 불일치성을 단순화해서 접근한다면 더글라스의 순수와 위험이나 엘리아데의 성(聖)과 속(俗)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대조적 속성들의 상대적 배치를 통해서 개별 속성의 개념이 정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상을 독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축제가 가치를 지니는 지점은 바로 축제 개념에 내재하는 이러한 모순성이며, 『우리는 빠창게로!』를 읽는 묘미 역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축제와 의례를 통해 우리는 멕시코 사람들 일상의 어떠한 단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 책의 사례연구가 이루어진 산안드레스(San Andrés)는 멕시코 모렐로스 주의 테포스틀란(Tepoztlán)에 속한 작은 농촌 마을이다. 이곳의 축제는 기본적으로 마을의 두 성당에 의해 조직되고, 축제력 역시 가톨릭의 종교적 제의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산안드레스의 축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대로, 초기 가톨릭 전교를 위해 수도회 신부가 주민들 앞에서 테포스틀란의 조상신 테포스테카틀의 형상이 부서지는 모습을 증명해 보이고, 그 조각난 잔재들로 새로운 수호성녀 ‘라 나티비다드’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게 했다는 일화는 가톨릭 도입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스페인 식민 통치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제도화되기까지 가톨릭은 관념적이고 물질적인 토대가 되었고, 가톨릭 종교의 전파는 기존의 상징과 제도의 파괴 그리고 해체를 수반했다. “차이는 생성의 바탕”이라는 저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저자가 17세기 원주민 사회의 문화접변에 대한 누티니(Hugo G. Nutini)와 벨(Betty Bell)의 공동연구를 인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가톨릭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창조성과 생명력을 통한 차이의 융합, 즉 ‘혼종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이 책에서 묘사되는 산안드레스의 축제는 혼종성의 개념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그중 일부 사례를 검토해 보면, 부활절 의례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카니발 축제는 서구와 달리 축제와 의례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멕시코 가톨릭의 특징을 보여 준다. 부활 주간의 금욕과 절제는 카니발의 시작과 함께 소비와 유흥으로 전환되고, 예수의 죽음에 비통함을 표현하는 상징물들은 부활을 축하하는



치넬로를 입고 브링코 춤을 추는 산안드레스의 축제

경쾌한 브링코(brinco) 음악과 춤 그리고 화려한 치넬로(chinelo) 의상으로 대체된다. 또한 스페인 백인들이 주도하는 카니발에서 배제된 원주민과 메스티소가 백인을 풍자하며 입기 시작했다는 치넬로 의상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비록 경제적 이유로 카니발 연회의 화려함이 제한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저마다의 창의력과 개성이 가미된 치넬로와 콘페티는 제도적 가톨릭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천되는 대중화된 의례로서의 멕시코 가톨릭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성모 과달루페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멕시코 역사에서 사회적·관념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원주민성, 특히 원주민 여성성이 혼합적 멕시코 가톨릭 안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혼종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과달루페 성모 발현의 목격자이자 중재자였던 후안 디에고가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해 왔고 최근에야 재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식민 시대에는 문명의 전파라는 기치하에 그리고 독립 국가에서는 새롭게 고안된 우주적 인종(메스띠사헤)이라는 이데올로기하에 통합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원주민의 지위를 대변한다. 또한 아스테카의 모신 토난친이 투영된 과달루페 성모의 형상화 그리고 제단에 바쳐진 옥수수를 통해 볼 수 있는 신크레티즘 성격은 일상과의 강력한 결속력을 통해 영적인 존재를 형상화하는 메소아메리카 종교 전통의 단면이 현대 멕시코 기독교 신앙 안에 녹아 있음을 보여 준다.

과달루페 성모 축일에 여자 아이들이 말린체 의상을 차려입는 이유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다. 식민화된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여성(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여성)은 성적 정복이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종속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매개로 그려지고는 한다. 스페인 정복자의 첫 원주민 출신 부인이었던 말린체는 이처럼 식민 통치의 폭력성과 억압성으로 인해 유린당한 멕시코의 종속의 역사를 원주민 여성의 신체를 통해 극명화한다. 과달루페 성모와 말린체의 결합은 이런 점에서 순수와 불결, 성과 속, 전통과 근대의 대조적인 관념들이 자아내는 모순을 모성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고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축제와 의례는 경제적인 활동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농작물 생산과 관련되는 산안드레스의 의례를 저자는 “생산의례”로 분류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축제들은 건기와 우기의 농업 주기에 따라 배치되고, 의례의 내용 역시 옥수수의 생산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련의 생산의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저자

는 산안드레스 사람들이 스스로를 초자연적 존재를 섬기는 존재로 한정하는 대신, 자연과 초자연의 호혜적인 거래, 다시 말해 균형과 소통을 매개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상징의 활용과 제의 행위의 재연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생산의례들은 멕시코 사람들의 생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옥수수 생산과 관련된다. 자연과 초자연의 아우르는 원리에 대한 관념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이는 멕시코 사람들의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주관을 드러낸다. 생산의례들은 또한 비, 동굴, 바람, 대지, 해, 달, 식물, 동물 등 자연물을 신성(deity)으로 형상화하고 다양한 신성들의 공존을 강조하는 메소아메리카의 종교전통과 수직적 유일신 전통의 가톨릭 담론이 혼합되어 멕시코 농촌 사회의 종교 제의로 자리 잡는(그리고 때로는 관행화되어 “신화 없는 의례”로 재생산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본문의 마지막 장은 산안드레스의 통과의례를 서술한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개인들의 이러한 다채로운 생활사는 때로는 의외성이나 자율적인 의지 또는 의도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삶과 죽음, 혼인의 방식과 혼인 관계, 성년기와 출산 등의 경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범위는 종으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 그리고 개별 사회 조직의 관념과 규범에 의해 한계지어진다. 통과의례는 개인들의 생활사에서 변수의 허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경험 단계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삶의 단계들에 공통된 의미를 부여하고, 제도화된 의미 부여를 통해 개인을 사회에 귀속시키는, 즉 규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입문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통과의례는 해당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구조를 잘 반영하며, 개인과 특정 사회가 접합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출산, 세례, 성인식, 결혼, 장례와 관련된

다섯 가지 통과의례를 소개한다. 이들 통과의례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서 필자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통과의례를 통해 멕시코 농민사회를 특징짓는 사회연결망인 공부모관계(compadrazgo)가¹⁾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와 관련해서다. 저자는 산안드레스에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유일한 조직은 가족이라고 보며, 핵가족 중심의 혈통관계와 친척 조직의 부재를 스페인 식민 지배 기간 이루어진 사회조직 재편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산안드레스의 공부모관계는 원주민의 친족 조직의 소멸을 대체하며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유효한 사회관계로 작동하는 공부모관계는 친족집단의 소멸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부 기관이나 기타 사회 조직들이 허약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된 방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공부모관계가 도시보다는 농촌을 맥락으로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물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하며 공부모관계의 범위가 점차 공동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 유동적으로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산안드레스에서 세레, 성체레, 견진레 등의 가톨릭 성사, 여자들의 성인식(quinceñera), 결혼식의례 등은 공부모와 대부자 관계 형성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산안드레스의 사람들은 축제와 의례를 통해 기독교 담론과 전통 종교, 자연과 초자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고, 제의 행위를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주기적인 재연을 통해

1)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가톨릭 대부가 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로 멕시코 사회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를 재생산한다. 더 나아가 수호성인 축제 등의 마을 축제로 마을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확인하며, 이웃 마을들과 ‘선물 약속’ (promesa)²⁾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는 산안드레스의 축제와 의례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해석하고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조한다.

필자가 단숨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의례 행위들이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읽는 재미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뼈뚫한 의문이 남았음을 토로해야 할 것 같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산안드레스의 축제와 의례에는 제의와 유희성이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의례 행위들로 표출된다. 그럼에도 축제를 치르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기부하며, 마요르도모(mayordomo) 같은 조직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한다. 한마디로 축제와 의례를 치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여가 불가피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명절을 떠올리며 생각해 본다. 우리가 명절 증후군에 대해 토로하듯이 산안드레스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축제와 의례의 번거로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러한 불만은 성별, 나이, 경제력, 주거지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필자의 아집어린 질문에 저자가 제안할지도 모르겠다. 먼저 우리의 축제와 의례에서 잊혀 가는 신화를 그리고 유희성을 복원하자고, 그렇게 우리의 축제도 한바탕 놀이가 될 수 있게 하자고 말이다. ■

강정원 - 미국 플로리다 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2) 이를테면, 다음 기회에는 내가 돼지 한 마리를 내놓겠다는 식의 언질로, 이는 인간에 대한 약속이자 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